



따스한 햇살이 깃드는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팀

1. 사업의 이해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72% 이하의 취약가족(한부모, 조손, 다문화, 북한이탈가족 등)과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위기 가족에게 사례 관리,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자원을 연계하고 학습정서지원서비스, 생활도움지원서비스,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네트워크 및 활동가 이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취약가족과 함께 삶의 목표와 계획을 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팀의 사회복지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유관기관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는 위촉식을 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알고, 적재적소에 자원을 연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함께 취약가족에게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 지원내용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필요합니다. 활동가는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지지리더로서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발하여 2주간의 양성교육을 통해 양성합니다.

배움지도사는 취약 가족의 초·중등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을 하고 멘토·멘티서비스를 통해 학습역량 및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키움보듬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가사지원, 개인활동 지원을 합니다. 지지리더는 위기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합니다. 활동가들을 직

접 가정으로 파견하여 취약·위기 가족들을 돕습니다.

3. 사례 관리의 이해

박취약 씨는 이혼한 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주부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6세 딸도 있어 일자리를 구해야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이 가족은 가족 역량 강화지원사업의 김역량 사회복지사는 박취약 씨 가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취약 씨는 심리적 안정을 원했고, 구직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박취약 씨의 아들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학습능력이 저하되었고, 학교생활 또한 위축되었습니다.

김역량 사회복지사는 박취약 씨의 계획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먼저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이혼으로 힘들었던 과정에 심리지지를 받도록 연결해주었습니다. 협력하기로 약속했던 유관기관 고용센터에 연결하여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박취약 씨의 아들은 배움지도사를 통해 취약했던 수학의 기초를 배우고 심리적 안정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빼끗한 박취약 씨에게 키움보듬이는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일을 돕고, 병원 동행에 함께하여 치료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박취약 씨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부모들과 자조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위

로를 받고 정보도 제공받아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취약 씨는 이혼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가족 역량 강화지원사업의 김역량 사회복지사와 함께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고, 가족의 기능이 무너질 수 있는 힘든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이가 없을 때 가족 역량 강화지원사업을 기억해주세요.

